

겨레말이 걸어온 길과 미래를, 보고 듣는 감각의 공간

글 이재규 우석대학교 교수



김애란의 소설 「침묵의 미래」에는 소수 언어를 쓰는 마지막 사용자들을 보호구역에 넣고 멸종의 위기에 처한 사멸의 언어를 보존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이 나온다. 언어가 ‘화자’로 등장해 말의 탄생과 소멸에 대해 이야기하는 독특한 설정의 이 소설에서 누구도 들어줄 이 없는 언어들- 문법과 시제, 멜로디는 “오직 신만이 전부 이해하고 기뻐할 만한” 것이 된다. 그중에는 높낮이의 변화로 전혀 다른 뜻을 전달하는 성조가 수십 개인 언어도 있고 어느 부족의 시제에서는 전생과 환생이 들어가기도 한다. 어느 나라 동사는 백오십 번 이상 몸을 바꾼다. 가히 천변만화라 할 수 있겠다. “그것은 프리즘에 닿은 빛처럼 여러 갈래로 꺾이며 굴절된다. 단어가 소리에 반사되어 영혼에 무지개를 비춘다.”

언어 박물관

프리즘에 닿은 빛처럼 언어를 감각할 수 있는 것으로 붙들 수 없기에 그 말을 쓰는 사람을 겨우 데려다 놓는 언어 박물관이 실재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 안에 갇힌 말을 어떻게 꺼내어 볼 수 있을까, 만질 수 있을까. 유리벽과 철조망 너머일망정 종종 울거나 움직이며 그 물성을 감각할 수 있게 하는 동물원 등이 먼저 연상된다. 하지만 사람의 언어는 발화의 당사자가 침묵해버린다면 그의 말이 빛어내는 빛을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전시 기획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우리가 지금 읽고 쓰는 이 말의 연원과 현재,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는 특별한 공간을 만든다면 그곳을 어떻게 채울까. 유물이나 자료를 수집하고 단순하게 전시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 공간에 들어온 사람이 생동하는 말의 변화를 오감으로 체험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먼저 우리말의 내력에 관한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의 언어 중에서 창제의 시기와 내력이 문헌으로 전해지는 것은 우리말이 유일하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결한 구성으로 창제 목적, 음가와 운용법, 창제자와 편찬자까지

명기되어 있다. 물론 “《훈민정음》 어디에도 우리말의 표기를 고민한 흔적이 없으며 세종 이전에 우리말은 ‘언문’으로 이미 존재했다”는 주장도 있다. 입말과 문자 사이의 선후 관계에 대한 연구는 더 보충되어야겠지만 해례본과 그 이후 언문 간행물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말의 탄생과 변화과정을 어느 언어체계보다 사실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훈민



훈민정음 해례본

정음》을 해설하고, 자모 변천과정을 간략하게 도해한 기존 전시보다 영상과 음성자료, 직접 체험 등 입체적인 다중매체 환경의 전시물이 배치되기를 바란다.

겨레말을 쓰는 사람들의 국어사전

겨레말이 걸어온 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사전이다. 올해 나온 영화 <말모이>는 일본 식민지 시기 우리말의 수난과 국어학자들의 고투를 잘 그려낸 작품으로, 국어사전의 의미를 설명하기에 좋은 영상 자료이다. 영화적 각색이긴 하지만, 조선 팔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물을 두고 각자의 사투리로 풀어놓는 장면은 인상적이었다. 집단의 창의가 발휘되는 순간이다. 규범이 먼저 있고 언중이 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말이 먼저 오가고 나중에 규범화가 따라오는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는 단일한 국어사전을 아직 가져보지 못했다.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우리말을 쓰는 언중을 하나로 본다면 말이다. 일부 계층만이 읽고 쓸 수 있었던 한자가 공식 언어였던 조선을 지나 일제 식민지 기간에 우리말은 주변어의 지위를 벗어날 수 없었고 우리말을 지키려는 노력과 사전 출간 노력이 이어졌지만 진정한 의미의 ‘국어’ 사전으로 자리매김하기 어려웠다. 해방이 되자 막바로 분단이 찾아왔고 사전에도 분단의 골은 깊게 파였다. 1957년 《큰사전》(한글학회) 6권이 완간됨으로써 일제하에서 어렵게 짝을 틈은 사전 편찬작업이 결실을 보았고 여러 민간의 노력이 더해졌다. 20세기의 끝인 1999년에서야 국립국어원 편찬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이 3권 7,308면으로 간행되어 국어사전의 면모를 갖췄지만 남쪽 ‘대한민국’의 일에 그쳤다. 북은 ‘조선인민공화국’의 기준에 따라 말과 글의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 독자적인 사전을 간행했다. 일본, 중국, 중앙아시아로 흩어진 겨레말의 운명은 더 가혹해 말을 지키고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겨레말을 쓰는 사람이 남과 북, 해외동포를 합하여 이제 8천5백만여 명에 달하지만 단일한 규범이 존재하지 않고 각기 다른 영향권 아래에서 이질화가 오랜 세월 진행됐다. 겨레말의 현실은 이산을 거듭한 우리 겨레의 운명과 일치한다. 그런데 이것을 불행으로 보지 않고 역설적인 축복으로 받아들여 겨레말이 양 체제 다양한 환경에서 분화 발전, 풍성해진 것으로 보면 어떨까.

- 《겨레말큰사전》의 완성 과정에 남북 해외 korean들의 ‘말모이’ 참여를 확대해야
- 《겨레말큰사전》은 실시간 편집사전, 디지털사전으로 확장되고
- 사전 통합과정에서 남북이 함께 쓰는 서체의 공동 개발 등 단일 정신을 높여가야
- 겨레말큰사전 홍보관은 말글의 이산과 통합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중매체 공간이 되어야



홍보관, 다양한 개인들이 참여하는 통로

남과 북이 합의하여 2005년부터 공동 작업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은 각자 다른 경로의 근현대를 경험한 양 체제와 국외 이산 동포의 삶을 담은 과정이어야 한다. 단일한 말글살이, 온전한 한겨레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한 이정표로 《겨레말큰사전》을 세우고, 사전 편찬과 제작과정에 겨레 구성원의 참여를 드높여야 한다. 지금은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원거리라는 제약을 넘어서 집단적인 의사소통도 실시간으로 가능한 세상이 됐다. 여러 백과사전도 온라인에 접속해 사용자가 곧바로 편집자가 되어서 집필과 검수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겨레말큰사전》도 우선 종이사전을 내는 1단계 과제 완수를 위해 현재의 남북합의를 주재하고 통합을 높여가는 단계적 접근이 채택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겨레말큰사전》의 방향은 개방형 디지털-온라인 사전의 길을 가야 한다. 남북, 해외 어느 곳을 막론하고 겨레말을 쓰는 이가 우리말의 말글 통합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다면 사전은 우리 겨레의 통합에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전 데이터베이스의 전격 개방, 남북 및 해외가 함께 쓰는 앱의 개발, 여러 지역말의 온라인 등재, 실시간 자율편집 등 선진적인 사전 편집 운용기술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홍보관은 이것을 적극 고무하고 다양한 개인들이 참여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



이재규

문화콘텐츠 기획자, 편찬사업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방송진행자, 국회보좌관, 시민행동21 대표 등을 지냈다. 현재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